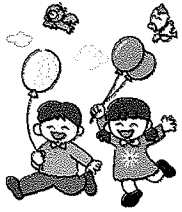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해의 선물** 폴 빌라드



(한국의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려있다는 수필입니다. 우리 때 소  
나기나 별이 생각나 요약정리해서 실어봅니다)

내가 네 살쯤 되었을 때의 일이었던 것 같다. 사탕가게에 들어가 먹  
을 수 있겠다 싶을 만큼 고르고 나는 주먹을 내밀어, 위그든 씨의  
손바닥에 반짝이는 은박지로 정성스럽게 싼 여섯 개의 버찌씨를 조  
심스럽게 떨어뜨렸다.

"모자라나요?"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나서 대답했다.

"돈이 좀 남는 것 같아. 거슬러 주어야겠는데....."

그러고는 내 손바닥에 2센트를 떨어뜨려 주었다.

세월이 흘러 나는 성장하여 아내와 나는 외국산 열대어를 길러 파는 장사를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남자 아이 하나가 제 누이동생과 함께 가게에 들어왔다. 남자  
아이의 예닐곱 살 정도밖에 안 되어 보였다.

아이들은 얼마 동안 물고기들을 살펴보더니, 손가락으로 몇 가지 종류를 가리키며  
한 쌍씩 달라고 했다.

소녀는 쥐었던 주먹을 펴고, 내 손바닥에 5센트짜리 두 개와 10센트짜리 한 개를  
쏟아 놓았다.

그 순간, 나는 먼 옛날에 위그든 씨가 내게 물려준 유산이 내 마음 속에서 솟아오  
르는 것을 느꼈다. 그제서야 비로소, 지난날 내가 그 노인에게 안겨 준 어려움이 어  
떤 것이었나 알 수 있었고, 그가 얼마나 멋지게 그것을 해결했는가를 깨닫게 되었  
다.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모자라나요?"

"돈이 좀 남는 걸". 나는 목이 메는 것을 참으며 간신히 말했다.

"거슬러 줄 게 있다."

나는 금고 서랍을 뒤져, 소녀가 내민 손바닥 위에 2센트를 떨어뜨려 주었다. 그리  
고 나서, 자기들의 보물을 소중하게 들고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는 두 어린이의 모  
습을 문간에서 지켜보고 서있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보니, 아내는 어항 속의 물고기들을 다시 가다듬어 놓느라고, 걸  
상 위에 올라서서 두 팔을 팔꿈치까지 물 속에 담그고 있었다.

"물고기를 몇 마리나 주었는지 아시거나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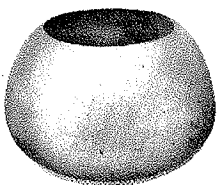
"한 삼십 달러어치는 주었지."

나는 아직도 목이 맨 채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위그든 씨에 대한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아내의 두 눈은 젖어 있었다. 아내  
는 걸상에서 내려와 나의 뺨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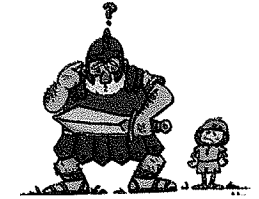
"아직도 그 박하 사탕의 향기가 잊혀지지 않아."



◀그때 그랬지▶ **늦 요강**  
문밖 멀리있던 변소에 가려면 어른이나 아이나 싫었던 추운  
겨울밤, 그때 방안에 있던 요강에 간단히 해결을 하고는 아  
침이면 거름더미에 쏟아 붓고 짚을 구겨 우물가에서 씻었습니  
다. 나중엔 신제품 사기요강이 나와 늦요강을 대신했습니다.  
쉴! 요강의 또 다른 비밀스런 기능 하나, 건조한 방에서 긴  
겨울 밤을 자고 일어나도 코도 안 막히고 감기에 걸리지 않은  
것은 요강이 가습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후문입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 <b>건강한가정건강한교회</b>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i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5권 31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8월 3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용감한 골리앗(?)**



"내가 용감하다고...???"

어떤 사람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의 일입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6척 장군 골리앗이 있었던단다. 그가 이스라  
엘에 쳐들어와 전쟁하자고 외쳤단다. 이스라엘 백성  
들은 너무 무서워 나무 뒤에, 숲 속에, 굴 속에 숨었  
단다. 이스라엘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을  
때 17살밖에 안되어 숨털밖에 안나서 면도칼도 필요없는 소년 다윗이 용감  
하게 싸우러 나갔단다."

여기까지 설교가 이어졌을 때

아들이 설교를 갑자기 중단시키며 말했습니다.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그는 아들에게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애야! 다윗이 용감하지 어째서 골리앗이 용감하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소년 다윗은 아무리 조그마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  
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도 함께 하지 않는데 자  
기만 믿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용감해요?"

**엄마가 딸에게**  
식탁에  
얼룩이 없게하라  
깨끗한 식탁은  
부지런한 주부의 얼굴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수할 때에 힘있게 쥐어라  
비록 손이 조금 아플지라도  
사람들은  
힘있는 약수를 좋아한다

